

# 광양제철소, 2분기 우수 협력사·직원 선정

### 우수 협력사에 (주)태운·우수 직원에 (주)대진 박효관 수석



(주)대진 박효관 수석

광양제철소 협력사협회(회장 이광용)가 다양한 개선활동을 통해 작업현장의 안전을 대폭 강화한 우수협력사로 (주)태운(대표이사 강주성), 우수직

원으로 (주)대진(대표이사 이명학) 박효관 수석을 선정했다. 우수 협력사로 선정된 (주)태운은 2010년 6월에 설립된 구내운송 전문

업체로, 광양제철소 철강공정 부산물인 슬래그의 운송을 담당하고 있다.

(주)태운은 15년부터 IoT(사물인터넷)·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태운' 시스템 구축을 통한 '스마트 안전관리'로 중대재해 예방에 앞장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표적으로 지게차 충돌사고 예방 알림시스템이 있다. 송신기를 부착한 지게차가 작업자 근처에 접근하면 안전모와 손목밴드 수신기가 진동알림을 보내 지게차와 작업자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한다.

또한, 작년에는 작업자가 운송물품을 내리기 위해 덤프트럭 적재함을 올라기 전, 지반 경사도를 알려주는 '경사도 인지 시스템'을 만들어 전도사고 예방에 나섰다. 적재함을 들어올릴 때, 지지대가 하나라 지반 경사에 의한 전도에 취약하여, 작업자에게 경사를 미리 알려주 위험을 판단할 수 있

게 된다.

우수 직원으로 선정된 박효관 수석은 14년간 재질 가공공장에서 샘플 가공업무를 담당하면서, 다양한 제안활동으로 안전과 품질 향상에 기여해 모범사원에 뽑히기도 했다. 특히, 작년에는 무거운 샘플의 자체무게를 활용한 앞·뒷면 자동 전환장치를 제작하고 최우수 개선사례로 선정되었다.

올해는 샘플 가공 시, 손을 대지 않아도 샘플 위치를 조절할 수 있거나, 기계장치 가동 중 손을 댈 수 없도록 보호막을 설치 하는 등 기계톱·프레스와 같은 장비사용으로 인한 끼임, 절단사고를 예방하고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광양제철소 협력사협회 이광용 회장은 (주)태운과 (주)대진 박효관 수석에게 포상을 실시하고, "상호 소통과 신뢰의 토대 위에서 노사가 상생함으로써 글로벌 철강사의 업무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양=심승섭 기자



지난 4월 30일 순천만국제습지센터에서 열린 한·중·일 3국 서예전각 교류전 테이프커팅. (사진=순천시청 제공)

## 순천시 한·중·일 3국 서예전각 교류전

### 국제습지센터서 오는 16일까지 유명작품 전시

동아시아 한·중·일 3국 서예의 진수를 느끼게 할 서예전각 작품 교류전이 5월 16일까지 순천만국제습지센터에서 열린다.

지난 4월 30일 순천시에 따르면 이날 순천만국제습지센터에서 2021 동아시아문화도시의 시작을 알리는 한·중·일 서예전각 교류전이 시작됐다. 허석 순천시장과 순천시의회 의원, 서예단체, 시민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타악퍼포먼스 그룹 열쑤의 축하공연과 테이프 커팅 등 공식행사가 진행됐다.

지강 김승민 작가가 10m가 넘는 현수막에 2021 동아시아문화도시의 슬로건인 '순천만, 동아시아를 품다!'를 대문으로 쓰는 퍼포먼스를 시연해 눈길을 끌었다.

열림식으로 막을 올린 본 교류전은 순천과 2020 동아시아문화도시 중국

양저우, 일본 기타큐슈의 유명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돼 관람객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2020 중국 동아시아문화도시였던 양저우에서 시작된 순회 전시는 이번 순천 전시가 끝난 후, 올해 하반기 일본 기타큐슈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서예 교류전은 한·중·일 3국 전통문화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행사여서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시기 시민들에게 위안을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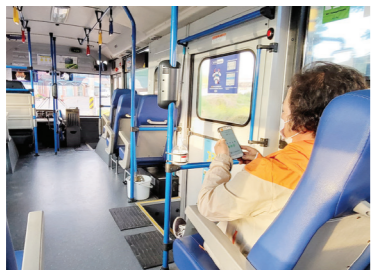
시는 서예전각 교류전을 시작으로 연중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5월 14일 순천만 국가정원 특별 수상 무대에서 '2021 동아시아문화도시 순천'의 개막식이 열린다.

순천=김승호 기자

## 보성군, 농어촌 버스에 세상을 담다

### 장도 사랑호·농어촌 버스 등서 와이파이 무제한 소통



보성군은 5월 1일부터 농어촌 버스 전 노선과 장도를 오가는 사랑호 선, 사랑호 버스에서 무선인터넷(WiFi)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무선인터넷 설치로 주민과 관광객이 데이터 요금 부담 없이 정보를 검색하고 관내 통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어, 디지털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무선인터넷 이용 방법은 휴대전화, 태블릿PC, 노트북 등에서 와이파이 신호를 켜고, 고유식별자(SSID)를 'Boseong@FREEWiFi'로 선택하

면 별도의 로그인 없이 누구나 손쉽게 5G 속도로 사용할 수 있다.

보성군은 4월 30일까지 버스과 선박 등 대중교통 33대에 와이파이 설치를 완료했으며, 지금까지 주요 버스 정류장, 선착장 등 공공장소 230여 개소에 무선인터넷을 구축하여 지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대면접촉이 어려워진 요즘 와이파이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어 마음이 한결 풍성해졌다"며 "군민 모두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5G 디지털 기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보성=김덕순 기자



## 순천시, 가정내 나트륨 줄이기 실천 서포터즈

### 순천시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회원시설 학부모를 대상으로 가정에서의 나트륨 줄이기 실천을 위해 '순심만(순천의 삼삼한 밥상 만들기) 서포터즈' 활동을 시작한다.

서포터즈 활동은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지원받은 염도계를 이용하여 가정에서의 국·찌개의 염도를 측정해 데이터를 전송하여 염도를 관리하게 된다.

또한 매주 저염 소식을 전송받고 소식지의 저염 레시피를 이용한 요리 인증샷 이벤트 등도 함께 진행한다. 이영주 센터장은 "영유아의 염도 기준이 적정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가정뿐 아니라 관내 어린이 급식소에 유관 서비스를 지원·교육하여 영유아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앞으로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 고흥군,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적극 전개

### 5개 유관기관 임직원 50여명 참여 안내문 배부·홍보

고흥군은 지난 4월29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학대 피해 아동 발견 시 즉각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관내 아동보호 기관인 고흥군, 고흥경찰서, 고흥교육지원청, 고흥군가족센터, 고흥나누리상담센터 등 5개 기관 임직원 50여명이 참여하여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고흥읍 시가지와 고흥동초등학교 앞에서

진행되었으며, 아동학대 신고 전화번호 112, 아동학대 유형, 신고 요령 등을 담은 홍보물 배부와 피켓, 플래카드를 이용하여 집중 홍보하였다.

한편, 고흥군은 지난해 개편된 아동보호체계에 발맞추어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2월부터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배치 운영 중이며, 이후 하반기에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도 배치할 예정이다.

기동취재본부

## 여수시, 밤바다와 디지털이 만나는 스마트관광도시 구현

여수의 밤바다와 디지털이 만나 만드려는 '밤.디.블 여수 여행' 프로젝트가 관광객을 찾아가고 있다.

지난 4월 30일 여수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1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했으며 밤.디.블 여수 여행 프로젝트가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스마트관광도시는 관

광요소와 기술요소의 융·복합을 통해 차별화된 경험과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관광 콘텐츠와 인프라를 개선·발전 시켜 나가는 도시다.

지난해 12월 전남도가 코리아 토털관광 패키지(KTTP)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여수시는 핵심사업인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에 뛰어들어 지난 3월 30일 서울드래곤시티 호텔에

서 발표식사와 자문회의를 마쳤다.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은 국비 35억, 도비 7억, 시비 28억 원 등 총 70억 원을 들여 '밤바다와 디지털이 만나 만드려는 밤.디.블 여수 여행'을 주제로 스마트관광 5대 요소인 스마트 경험·편의·서비스·모빌리티·플랫폼을 구현한다.

여수=오상호 기자

#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약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간격거리를 두어 주세요!